



'ACC 슈퍼 클래식' 공연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열린다. 왼쪽 위부터 리처드 용재 오닐, 루돌프 부흐빈더, 리파우 블레하츠·김봄소리, 레이 첸, 아나책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CC
슈퍼클래식
Super
Classic

세계 클래식 '별' 들 광주 온다

내달 16일부터 'ACC 슈퍼 클래식'...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리처드 용재 오닐·루돌프 부흐빈더 등 7팀 출연

패키지 '반값' 29일 예매

올해 광주에 클래식 스타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최근 공개한 'ACC 슈퍼 클래식' 출연진을 보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리처드 용재 오닐·루돌프 부흐빈더 등 면면이 화려하다.

먼저 슈퍼 클래식 첫 번째 문은 오는 2월 16일 오후 5시 쇼팽 콩쿠르 우승자 라파우 블레하츠와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의 듀오 콘서트로 연다.

폴란드 출신 블레하츠와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승에 진출한 김봄소리는 세계 투어에 앞서 지난해 7월 베를린에서 모차르트, 포레, 드뷔시, 시마노프스키의 바이올린 소나타 녹음을 마쳤다. 이들의 신보는 이달 중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발매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4번 F장조', 포레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드뷔시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 소나타 D단조'를 연주한다.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리사이틀(5월8일)은 클래식 애호가들 사이에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공연 중 하나로 꼽힌다. 6년 만의 한국 투어에서 60년 넘게 활동하며 베토벤 소나타 32곡 전곡을 수 차례 녹음한 그의 베토벤 소나타 향연이 펼쳐진다.

부흐빈더의 공연 이틀 뒤에는 싱가포르의 유일한 국립 중국인 오케스트라인 '싱가포르 차이니스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무대를 펼친다. 이날 80여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남아시아 악기들과 협연을 통해 독창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양상을 '디토'로 지난해 광주를 찾았던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오는 6월 11일 다시 만날 수 있다. 지난 2006년 미

국 최고 권위의 클래식상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리처드 용재 오닐은 올해 국내 데뷔 15주년을 맞아 피아니스트 제레미 뎡과 협연 무대를 갖는다.

'ACC 슈퍼 클래식'의 백미는 단연 올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자들의 공연(9월6일)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는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첼로 부문을 매해 번갈아 가며 개최한다. 한국인 3명이 결승에 진출한 2015년 바이올린 콩쿠르 모습을 담은 영화 '파이널리스트'가 지난 24일 국내 개봉하면서 올해 치러지는 바이올린 콩쿠르에 대한 클래식 팬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2015년 우승자 임지영이 부상으로 4년간 임대한 스트라디바리우스 '허긴스' 바이올린이 누구에게 돌아갈 지 오는 5월 열리는 결선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11월1일에는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대만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이 광주 관객을 만난다. 그는 지난 2017년 소니 레이블과 발매한 앨범으로 '에코 클래식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포브스지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아시아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65년 전통의 아나책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슈퍼 클래식 대미를 장식한다. 체코 출신 작곡가 레오스 아나책의 이름을 따라 1954년 만들어진 이 오케스트라의 공연에서는 레오스 스바르브스키가 지휘봉을 잡고 피아니스트 본드라첵이 협연할 예정이다.

총 6회에 걸쳐 열리는 'ACC 슈퍼 클래식'을 반값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싱가포르 차이니스 오케스트라 제외)은 오는 29일부터 문화전당 홈페이지(acc.go.kr)를 통해 총 60석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R석 21만원·S석 15만원·A석 9만원).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명욱 작



이주욱 작

황금돼지 기운 받아주세요

화순 다산미술관 4월 25일까지 '행복한 2019' 전시·서·화 어울린 문인화...현대서에 등 다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복을 기원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화순 다산미술관은 오는 4월 25일까지 기획초대전 '행복한 2019' 전시를 진행한다.

전시작들은 글씨에 회화적 요소를 도입한 현대서예와 시·서·화가 어우러진 문인화 작품으로 구성했다. 전남도가 지난해 국제수목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등 여느 때보다 수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기획이다.

이번 전시에는 신강균·정석훈·조연수·조창현·전명욱·한상운·박익정·이협성·김정래·이주욱·윤혜숙·류경숙·이흥홍·이규대·김삼순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1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작들은 해학과 유머가 돋보이는 작품들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돼지들은 유쾌하다. 작가가 저마다 전하고자 하는 글귀와 더불어 수목 안에서 어우러지는 돼지들은 관객들에게 웃음을 제공한다. 오동통하게 살아 오던 돼지 형상은 풍성함과 다복함을 상징한다. 또 단어 '돼지'는 무엇이든 이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운을 주는 우리말 '되자'와 발음이 같아 긍정적인 메시지도 전한다.

간결한 그림 속에 숨겨진 다양한 글귀와 의미를 찾아내는 건 관람자가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즐거움이다.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월요일 휴관. 문의 061-371-3443 /김미은 기자 mekim@



정석훈 작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5가역 1층 **02) 765-9940**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연회비

구분	연회비(VAT포함)	비고
개인(1년)	₩ 2,800,000	본인 1인
증정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